

# 「'89최우수농장상」을 수상한 송파농산

취재 : 곽삼섭 기자

'89년도 검정소에 출품한 종돈장 중에서 검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종돈장으로 선정되어 지난 2월 26일 대한양돈협회로부터 「'89 최우수농장상」을 수상한 송파농산을 찾았다.

정문을 들어서서 순간 최우수농장임을 입증이나 하듯 관상수가 즐비해 기자의 가슴을 흥분되게 했다. 입구에서 농장사무실로 가는 주변에는 환경정리가 잘되어 역시 최우수농장의 면모는 다르구나 하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2층으로 된 10여평 남짓한 농장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몇명의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89년 한 해동안 세차레나 검정소로부터 수여받은 검정돈 챔피언 패넛트가 벽

가장자리에 장식되어 있었다. 또 옆쪽 벽에는 '89 최우수농장임을 표시하는 대형 상패가 환희 빛나는 모습으로 걸려 있었다.

'88년 4월 19일부터 검정소에 출품하기 시작한 송파농산은 그해 22두, '89년에는 40두의 검정돈을 합격시켰다. '89년 한 해동안 검정소에 출품한 64개 농장 중 20두 이상 출품농장 21개소를 대상으로 선발지수, 챔피언 선정횟수, 합격두수, 합격률, 출품두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이번 선정에서 송파농산이 1,087.5점을 획득하여 최우수농장의 영광을 차지한 것이다.

그 좋은 예로 '89년도 검정소에 출품해 챔피언돈으로 선정된 평균 성적에서 잘 알 수 있다. 일당증체량 976g, 사료요구율 2.43, 등지방두께

1.58cm, 선발지수 205점을 기록해 송파농산의 이름을 일신한 셈이다. 이와같은 수치는 지금까지 종돈개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송파농산의 내적인 성장이고, '89년도 최우수농장다운 자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 84년부터 본격 종돈개발 시작

송파농산(대표: 이선용, 전화 <0415>63-2220)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 대평리 8-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가면 약 1시간 30분 소요되는 거리이다. 현재 양돈을 비롯해 비육우·곰·비단잉어를 사육하고 있으며, 관상수·서양란 등도 기르고 있다. 10만



▲ 송파농산 전경

여평의 광활한 대지위에 다른 품목에 비하면 양돈장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그중 2만여평의 부지에 3천여평의 돈사가 나란히 들어서 있고, 원종돈 120두를 비롯해 200여두의 모돈이 사육되고 있다.

20년전인 1978년 7월 송파농산 이선용 사장은 3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계곡이 심한 이 땅에 비육우를 사육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양돈업에 대한 동경과 호기심을 갖고, 이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한다. 송파농산의 역사는 강산이 두번이나 변한 지금 내적인 성장은 물론 외적인 성장을 거듭해 전문종돈장으로 변신했다.

처음에는 비육돈 생산에만 목적을 두고 경영을 해왔기 때문에 종돈

생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고 한다. 사실 비육돈 생산은 단순한 경영에 불과해 경영 스타일을 종돈생산 쪽으로 방향을 정한 연도는 일천하다. '84년부터 본격적으로 종돈을 개량하기로 결정하고, 그 해에 미국으로부터 랜드 레이스 9두, 대요크셔 6두, 듀록 4두, 햄프셔 1두 등 총 20두를 수입해 기초축으로 이용했다. '85년에는 또, 영국에서 13두를 수입한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이들 두나라에서 수입한 종돈은 총 71두로 농장의 핵돈군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돈군에서 생산된 자돈은 1차로 5% 수준에서 선발되고, 나머지는 증식돈군으로 보내는 것을 빼고는 도태시키고 있다. 75~85kg 전후로

하여 모돈의 강선발을 실시하고, 이때 개체체중·체형 등의 외모심사를 거쳐 2차 선발이 이루어진다. 이때 체형은 흉위, 체장, 흉심, 체고 등의 외모심사가 엄격히 체크된다. 또 다시 3차 선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인 90~120kg에서 일당 중체량,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 외모 등을 기준으로 1복당 1~2두의 능력위주로 강선발을 하고 있다. 특히 햄, 유두의 이상유무, 골격 유지상태 등 외모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자체평가하고 있다.

양돈산업의 최종산물이 돼지고기인데 누구나 질이 좋은 고기를 경제성 있게 생산하고 싶어한다. 종돈개량의 구체적인 방향은 분명히 육류의 질 쪽으로 유도된다고 보며, 종



▲ 질서정연하게 자리잡은 후보돈사에 방목장이 넓다.

돈개량의 불꽃이 종돈생산에서 육류의 질에 이르기까지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다.

송파농산은 이러한 일념아래 등지방보다 육질쪽에 치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각 개체마다 장단점을 체크하여 교배계획을 짜고, 햄프서와 듀록을 핵돈군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3원 교잡종 생산용 종모돈은 체장이 길고, 산자수가 많으며, 등지방두께가 얇고 일당증체량이 우수한 듀록종이 적격이라고 한다.

그외에도 송파농산은 F<sub>1</sub> 모돈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가지 예로 듀록을 종부해서 얻은 F<sub>1</sub>에 최종 햄프서(♂)를 종부하면 육질, 성장율, 사료요구율, 강건성 등이 뛰어난 개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F<sub>1</sub> 모돈에 대요크서를 사용하면 등지방이 두꺼운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확보와 수입돈 품종간의 특성 및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종돈장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히 굳힌다는 목표를 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수한 종돈을 일반농가에 보다 싼 가격에 보급할 계획도 있다. 지금까지 종돈을 분양하면서 이상이 있다는 지적은 없었지만, 분양후에도 사후관리는 물론 일반 사양관리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송파농산은 현재 월평균 40~50두의 종돈을 판매하고 있다. 종돈가

〈표〉 송파농산의 챔피언 돼지 출품현황

경매차수	품종	성별	체고(cm)	체장(cm)	일당증체량(g)	사료요구율	등지방두께(cm)	선발지수
55차	L	♂	63	100	1,053	2.51	1.43	212
60차	L	♂	65	105	968	2.31	1.67	208
66차	H	♂	66	102	906	2.46	1.64	194

과거에는 일반농가에 스포티드종모돈을 확보해 그것을 모축으로 하여 F<sub>1</sub>을 생산한 예도 있고, 듀록의 교잡으로 사지상태가 불량한 단점을 개선할 수 있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 개량목표 설정하고 육종추진

송파농산은 앞으로 사료요구율 2.0이하, 등지방두께 1.2~2.0cm이하, 일당증체량 1,200g이상, 105kg 도달 일령 135일이하 등으로 개량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특히 우수한 종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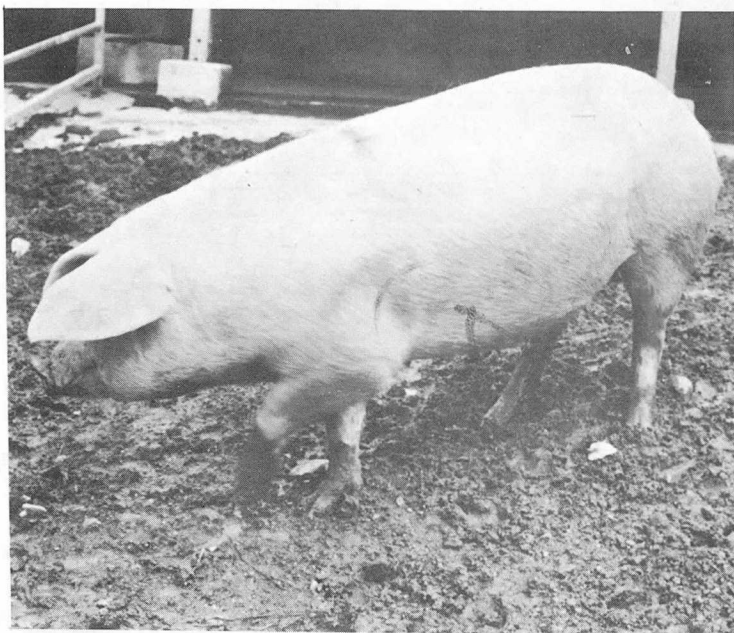
가격은 30kg(20만원)을 기준하여 1kg당 2,000원을 곱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 불황에서도 평균판매두수에 별 무리없이 이 수준을 유지한 것은 종돈을 분양하면서 일반농가에 질병지도는 물론 사양관리 지도를 철저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송파농산의 돈사는 현대화된 시설은 아니지만, 돈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무창돈사 같은 시설비나 관리비가 많이 드는 돈사보다는 지역의 기후에 맞는 시설로서 겨울에는 태양열을 최대한 이용하고,

〈표〉 연도별 송파농산의 수입돈 두수 현황

수입 년도	국명	수입돈 수 (품종별)
'84	미국	20두(L9, Y6, D4, H1)
'85	영국	13두(L6, Y7)
'86	영국	6두(L3, Y3)
'87	미국	5두(D2, H3)
'88	영국	12두(L7, Y5)
'89	영국	12두(L7, Y5)
	미국	3두(D3)
합	계	71두(L32, Y26, D9, H4)

여름철에는 주위의 나무그늘을 이용하는 정도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AR 등 호흡기 질병을 막고, 청정돈군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



▲ 방목장이 넓어 지체가 튼튼하게 보인다.

## 종돈 방목장에 방사해 지체 강건성 높여

종돈으로서의 가치는 지체가 강건해야 한다. 송파농산은 지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후보돈의 경우 종전에 비육우를 키우던 방목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일반농가에서는 콘크리트를 하여 방목장을 갖추고 있는데, 송파농산은 콘크리트 물량에 의한 손실을 막기 위해 흙 그대로 두고 방사하고 있다. 콘크리트돈방바닥이 너무 조악하면 발바닥과 제관부가 손상되고, 너무 매끄러우면 관절이나 근육, 고관절의 탈구를 일으키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설을 감안하여 종돈구입자들이 오면 농장을 일단 둘러보게 하고 종돈을 구입해 가도록 한다.

송파농산은 이밖에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계획, 월계획에 의하여 업무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월요일 조회때마다 그 주일의 일과를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토요일에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자체평가시에는 전직원(양돈부 8명)이 참석, 충분한 토론을 갖는다. 이런 까닭에 전직원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생활한다.

농장의 인력관리가 양돈업 현안 문제로 대두된 지금 송파농산은 철저한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출퇴근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 놓고 있는데, 6시 이후부터 2시간정도 더 근무할 경우 개인당 1,500원, 수직을 할 경우 2,500원을 지급한다. 그 외에 고정적으로

출하수당 15,000원과 수정수당 15,000원을 정해 월급때 같이 지급한다.

종돈장의 성패는 경영자의 경영능력도 중요하겠지만, 농장에서 직접 일하는 실무자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송파농산의 박종배 과장은「전직원이 신뢰성과 돼지와 함께 대화하는 정성으로 종돈개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실무자의 농장관리에 대한 중요도를 밝히기도 했다.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종돈개량에 힘써온 송파농산 이선용 사장이 하 전직원들은 한국의 종돈개량사에 그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89최우수농장』답게 앞으로 송파농산의 종돈개량을 기대해 본다. ●